

신경림의 『농무』에 나타난 장소 연구

송지선(전북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실존의 위기와 무장소, 도시 변두리 |
| 2. 산업화에서 소외된 장소, 시골 장터 | 5. 맺음말 |
| 3. 원초적 장소의 상실, 고향집 | |

1. 머리말

신경림 시인은 1956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편들로 『문학예술』지에 등단한 후, 10여 년간 절필을 하였다. 낙향한 그는 농촌 마을, 쇄전, 광산, 공사장을 전전하였다. 그곳은 산업화 시대의 피폐한 삶의 현장으로 가난과 소외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기층민들의 불안한 거주지였다. 신경림은 기층민들의 삶에 관조자로서가 아닌, 동지로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 이러한 체험은 그에게 사회 구조적 모순이 낳은 기층민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내부자의 시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시집 『농무』(1973)에서 그의 주된 시적 대상은 농촌과 도시 빈민들의 변두리적 삶이다.

1970년대 정부가 추진한 산업화는 공업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었다. 그 방편으로 농산물저가정책을 실시하여 농촌은 산업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농무』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생존의 기반이 와해된 농촌에서 실의에 빠진 농민과 살 궁리를 모색하기 위해 이항하는 농민,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의 신산한 삶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까지 신경림 『농무』에 대한 박사논문은 확인되지 않으며, 석사논문 5편, 학술지 논문이 6편인 것으로 조사된다.¹⁾ 대표적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길자²⁾는 신경림 『농무』가 역사적 기록임과 동시에 증언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것은 종래의 소박한 서정시와는 달리 제재의 폭을 넓힘과 함께 시가 민중의 경험을 대변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석환³⁾은 기호학적 접근을 통하여 『농무』에는 주로 수평적 공간 기호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시인이 현실적 삶에 관심을 보인다는 시세계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강정구⁴⁾는 『농무』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농무』의 내용이 주로 ‘서울’에 대한 동경과 전근대로 상징되는 ‘농촌’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의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농민의 ‘서울콤플렉스’로서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자기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것은 서울에 대한 신식민주의가 조장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대의⁵⁾는 『농무』에 나타난 이미지를 시간적 이미지, 공간적 이미지, 원형적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리얼리즘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지양하고자 시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겠다고 했으나 세 단계의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현실적 측면이 불가피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서범석⁶⁾은 『농무』를 민중문학으로만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농민문학’,

1) 이 정보는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 ‘국회도서관(www.nanet.go.kr)’의 검색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검색어 : 신경림, 농무)

2) 한길자, 「신경림 시집 『농무』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6.

3) 김석환, 「신경림 시집 『농무』의 기호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0.

4) 강정구, 「신경림의 시집 『농무』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어문연구』 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5) 이대의, 「신경림 시의 이미지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4.

6) 서범석, 「신경림의 『농무』 연구-농민시적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또는 ‘농민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농무』에 실려 있는 농민시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공간인 농촌을 배경으로 현실적 농민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 ‘풍속사적 농민시’의 성향이 결합된 ‘민중문학으로서의 농민시’라는 주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미영⁷⁾은 로트만의 전달체계를 화자와 청자 관계로 정리하여 신경림 『농무』의 어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우리’의 전달의 경우 ‘우리’라는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빈민층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 집단성과 객관성을 획득하여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농무』에 나타난 리얼리티 형상화 방법, 슬픔의 미학,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농무』의 기호학적 측면이나 소통 구조 측면을 살펴보는 형식적 접근에서조차 이 시집의 탄탄한 현실적 의미를 피해갈 수 없음을 알았다. 본고는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여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농무』에 나타난 장소의 특성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내면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에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면 장소가 된다. 장소는 인간의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존의 보금자리로서, 공간보다 범위가 작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공간은 장소를 토대로 존재하고, 장소는 공간을 통하여 맥락적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다.⁸⁾ 장소의 정체성은 인간이 장소와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그 장소에 오랜 시간 거주함은 낯선 공간을 친밀한 장소로 바뀌게 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친밀한 장소를 갖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필수조건이다. 여기서 갖는 진정한 장소감⁹⁾은 인간존재의 중요한

7) 손미영, 「『농무』의 담화체계와 시적 어조의 특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0.

8)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05면 참조.

9) 장소감은 방향 감각 같은 단순한 인지에서부터, 다양한 장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초석으로서 장소와 심오한 연관을

실존 양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를 위시한 현대의 사회 구조는 직업 중심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여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물며 외부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피상적 장소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적 사회 구조 안에서 현대인은 장소에 대한 애정이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심정적 개입 없이 그냥 장소 안에 있기만 하는 것은 무장소성의 토대가 된다. 이처럼 무장소성은 의미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함께 기술하는 말이다.¹⁰⁾ 무장소성의 확산으로 현대인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정서적으로 불행한 삶을 산다.

공업 위주의 산업화는 당시 인구의 대부분이던 농민들이 고향을 잃어가는 상황을 가속화시켰다. 농민에게 가장 친밀한 장소는 농촌이며, 그곳은 고향이다. 농민이 농촌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버리는 행위로서 조부모와 부모, 오랜 친구, 그밖에 자연 풍경과 풍물까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고향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개인의 총체적인 삶과 결부되는 의미 깊은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뿌리인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는 인간은 정체성 혼란과 실존의 부재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이향한 농민들은 정신적 뿌리가 뿔친 채 도시의 무장소성을 방황하는 존재가 된다.

진정한 장소의 본질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경험 속에서 파악된다. 어떤 장소의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그곳과 동일시됨을 말한다. 더욱 깊이 내부에 있게 될수록 장소와의 동일시, 즉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 강해진다.¹¹⁾ 산업화에서 소외된 농촌에 몸담으며 신경림이 지향한 세계는 개인의 의식 또는 내면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살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농민들의 생활과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골장

맺는 것에 이르기까지, 장소감이란 인식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위의 책, 145면.)

10) 위의 책, 290면.

11) 위의 책, 116면.

터와 시골집, 그리고 산동네와 같은 도시 변두리를 시의 무대로 삼았다. 이것은 신경림에게 체험을 통한 내부자의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그 장소에 둘러싸여 그 일부가 되는 진정한 장소감의 실천이었다.

이 글은 신경림의 『농무』에 나타나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현실을 시골장터, 시골집, 도시 변두리라는 장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적 대상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소외의식의 근원을 밝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2. 산업화에서 소외된 장소, 시골장터

시골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만남과 교류의 장이다. 그곳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곳 이면서 서로 간의 밀린 정보를 교환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주막에 앉아서 삶의 시름을 푸는 정겨운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풍속과 풍물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전통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산업화는 농촌 생활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 현상으로 다가왔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농촌은 생존기반이 흔들리면서 안온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농촌의 생명력이 넘치는 시골장터의 경관은 근대화의 뒷골목으로 쇠락한 풍경이 돼버렸다. 농촌의 활기가 살아있던 시골장터는 폐쇄한 삶의 현장이 되어, 이곳에 대한 농민의 애착은 변질되었다. 장소와의 유대감을 상실한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다.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농무」 전문

위 작품에는 농민들의 애환이 깃든 시골 장터의 여러 장소들이 시 전체에 걸쳐 등장한다. 그것은 음악과 춤이 끝나버린 ‘운동장’, ‘우리’의 분함을 달랠 ‘소줏집’, 답답한 마음에 뛰어여 든 ‘장거리’, ‘쇠전’, ‘도수장’으로 연결되며, 장소의 이동에 따라 농민들의 서러움이 점차 고조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이처럼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근본 원인은 바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때문이다. 정부의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의 저곡가 정책은 ‘우리’가 당면한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막이 내린 공허한 운동장에서부터 죽음의 장소인 도수장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징·팽과리 소리는 이 시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농무에 필수적인 이 악기 소리는 다분히 시대 저항적 맥락으로 이해되며, 장소를 극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구경꾼’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는 군중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므로, ‘우리’는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후 공허함과 함께 다시 ‘원통’한 현실이 찾아와 ‘술을 마신다.’ 취기로 현실을 망각하고 ‘팽과리를 앞장 세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춘다. 이처럼 음악과 춤을 통해 사람들은 의도적인 목적지향적 생활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방향성 없는 공간에서 잠시 살 수 있다.¹²⁾ 그러므로 농악은 공간적 환상을 창조하여, 농민을 ‘신명’나게 한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생긴 이 ‘신명’은 현실적 시간과 정향 공간에 대한 인식을 무력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근심을 잊게 한다. 이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실존을 유지해주던 장소로부터 이탈하여 무차별적인 공간으로 자신을 떠맡기는 것이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애기 조합빛 애기
 약장수 기타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쉴더라도 벌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식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

— 「파장」 전문

비료값도 안 나오는 적자 농사는 농촌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은 그러한 농촌 현실을 서정적으로 간명하게

12)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09면

묘사하고 있다. 빈곤한 삶의 현장에 남겨진 농민들은 스스로를 ‘못난 놈들’이라 할 만큼 패배의식에 젖어있다. 그런 ‘못난 놈들’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감정은 동병상련에서 오는 서러움이므로, ‘홍겹다’는 기실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불행이 그들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연민이 그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행동하는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시 집권적 권력에 억압당하고 유연해진 의지의 문제였다. 그렇게 농민 특유의 건강함을 잃은 시골장터의 모습을 ‘절뚝이는 파장’으로 형상화하여 그 불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농민에게 자기 마을은 그의 일차적인 장소여서 동료인 마을 사람들과 자주 접한다. 또 성인이 되면서 지방의 시장 구역을 수없이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장거리에서 자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공동체 사람들과 사귄다. 한 중년의 농민은 시장에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정도의 안면을 가지고 있다.¹³⁾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시골장터가 농민에게 친밀한 장소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이발소’, ‘목로’술집, ‘학교 마당’ 등이 있는 시골장터는 농자친하지대본이던 시절에는 근린에 사는 이웃을 만나 생기가 넘치는 활자한 장소였다. 하지만 농업이 낙후한 산업이 되면서 이곳은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빛 얘기’로 점철되는 신산한 장소가 되고 친밀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곳이 돼버렸다.

시적 화자는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늦은 저녁 장터를 걸어 나온다. ‘고무신’이든 ‘조기’든 하나뿐인 데다, 그마저 ‘또는’이어서 양자를 모두 살 수 없는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두들’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은 농촌과 대비되는 공간이자, 자유와 기회로 가득 찬 미지의 공간이다. 산업

13) 위의 책, 270면 참조.

화의 중심지 ‘서울’을 지향하는 것은 더 이상 농촌에서 정주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는 그들의 체념과 소외의 이유는 가장 친밀한 장소인 고향과 유대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묵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왁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던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핑핑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뱃다더라. 어떡할거나.

... (중략) ...

보리밭을 질러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눈이여 쌓여
지붕을 덮어다오 우리를 파묻어다오.
오종대 뒤에 치마를 둘러쓰고
숨은 저 계집애들한테
연애편지라도 띄워볼거나. 우리의
피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여볼거나.

— 「겨울밤」 일부

진눈깨비가 흩뿌리는 금방앗간
그 아랫말 마чат집 사랑채에
우리는 쌀 너 말썽에 밥을 불었다.

... (중략) ...

객지로 돈벌이 갔던 마чат집 손자가
 알거지가 되어 돌아와 그를 위해
 술판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 술판은 이내 싸움판으로 변했다.
 부락 청년들과 한산 인부들은
 서로 패를 갈라 주먹을 휘두르고
 박치기를 하고 그릇을 내던졌다.
 이 못난 짓은 오래가지는 않아
 이내 뉘우치고 울음을 터뜨리고
 새 술판을 차려 육자배기로 돌렸다.
 그러다 주먹들을 부르짖고 밖으로 나오면
 식모살이들을 가 치녀 하나 남지 않은
 골짜기 광산 부락은 그대로 칠흑이었다.
 쓰러지고 엎어지면서 우리들은
 노래를 불러댔다. 개가 짖고 닭이
 울어도 겁나지 않는 첫새벽
 진눈깨비는 이제 함박눈으로 바뀌고
 산비탈길은 빙판이 저 미끄러웠다.

— 「그 겨울」 일부

『농무』에는 유난히 ‘겨울’과 ‘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겨울’과 ‘밤’은 당대 농촌의 암흑과 무생명력을 그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겨울밤」과 「그 겨울」 역시 이러한 시간적 배경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겨울밤」의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과 「그 겨울」의 ‘금방앗간/ 그 아랫말 마чат집 사랑채’와 같은 시골장터의 만남의 장소는 절망으로 얼룩진 해체기 농촌의 일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겨울밤」의 ‘우리가 거하고 있는 ‘뒷방’이라는 장소는 그들이 처한 현실과 부합한다. 외지에서 온 ‘장꾼들은 왓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던다.’ 가옥 구조 상 ‘뜰’은 전방에, ‘뒷방’은 후방에 위치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방 공간은 “밝다”. 그러나 후방 공간은 태양이 비칠 때에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방 공간은 미래로 간주되고 후방 공간은 과거로 간주된다. 전방은 존엄함을 의미한다. 후방 공간은 속(俗)의 공간이다.¹⁴⁾

‘장꾼’들은 이 장소에 뿌리내린 농민들과 달리 떠돌이 집단으로서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긴밀한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을 털 듯 이 농촌을 떠날 수 있고 미래를 향한 전방, 즉 ‘딸’에 자리 잡게 된다. 반면에 ‘우리’는 농촌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이 장소와 단단히 결속돼 있다. 산업화의 악영향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쉽게 농촌을 떠날 수 없는 ‘우리’는 ‘뒷방에 모인다. 따라서 ‘뒷방’은 미래에 대한 후퇴와 경제 개발에서 소외된 시골 장터를 표상하는 장소가 된다. 이곳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쌀값 비료값 얘기’,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뱌다더라.’처럼 신산하기만 하다. 내면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는 농한기인 ‘겨울밤’에 이런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장소에 처했기 때문이다.

「겨울밤」과 「그 겨울」에는 ‘겨울’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외에도 ‘눈’이라는 자연적 배경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겨울밤」의 ‘눈’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파묻어다오.’라는 시적 화자의 외침을 듣는 대상이다. 또한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평평 쏟아지는테를 통해 보듯, 눈 오는 농촌의 경관은 ‘우리들’ 내면의 속사정과 달리 화해의 세상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농촌살이가 비록 암담하긴 해도 ‘묵내기 화투를 치는 겨울밤 농가의 전형적 풍속이 그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겨울」의 ‘눈’은 ‘진눈깨비는 이제 함 박눈으로 바뀌고/ 산비탈길은 빙판이 저 미끄러웠다.’에서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위태롭게 하는 대상이다. 또한 이 ‘눈’은 ‘칠혹’ 같은 ‘골짜기 광산부락’의 어둠과 겹치면서 안락한 장소에서 떨어진 쓸쓸년스러운 농촌의

14) 위의 책, 71-72면 참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чат집 손자’를 위한 위로와 환영의 ‘술판’은 ‘싸움판’으로 뒤틀린 장소가 돼버린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장소 경험이나 인식에도 상당한 관련을 준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이촌 향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도시로의 거주지 이동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또한 이 시기의 석유 보급으로 폐광하는 폐촌이 늘어나 농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 겨울」에서 ‘식모살이들을 가 치녀 하나 남지 않은/ 골짜기 광산부락은 그대로 칠혹이었다.’는 농촌 공동화의 모습을 극명하게 제시한다.

「겨울밤」의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배고, 「그 겨울」의 ‘객지로 돈벌이’간 ‘마чат집 손자’는 ‘알거지’가 된다. 그들은 모두 도시의 풍요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가 삶을 실패한 인물이다. 「그 겨울」의 이동노동자 ‘한산인부’도 생계를 위해 광산을 찾아왔지만, 불안정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은 사적 생활에 있어서 ‘고향’으로 경험되는 피난처를 재구성할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주 ‘고향을 잃었다는 느낌’의 찬바람이 이러한 연약한 구성물에 위협을 준다.¹⁵⁾ 인간은 객지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고향 상실감’을 계속해서 억압하나, 그것은 술기운에 표면으로 분출되고야 만다. ‘주먹을 휘두르고/ 박치기를 하고 그릇을 내던’지다가 ‘이내 뉘우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억압된 자아의 폭력적, 충동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객지에서 불행한 이유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소를 상실한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3. 원초적 장소의 상실, 고향집

‘고향집’은 한 인간의 뿌리가 생성된 곳으로서 향수의 근원이다. 고향에

15) 피터 버거, 이종수 역, 『고향을 잃은 사람들 : 근대화의 의식구조』, 한빛, 1981, 168면

내가 머물 집이 있는 한 고향은 언제든 회귀 가능한 영원한 보금자리가 된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집이 모성적 기능을 상실하고 물리적으로 훼손 되었을 때 고향은 존재할지라도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리하여 『농무』의 시적화자는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고향집의 상실로 삶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표상에서 자신의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물리적 장소이자 원초적 장소인 고향집이 사라지는 것은 뿌리 뽑힌 삶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

이제 나는 시골 큰집이 싫어졌다.
 장에 간 큰아버지는 좀체로 돌아오지 않고
 감도 다 떨어진 감나무에는
 어둡도록 가마귀가 날아와 운다.
 대학을 나온 사촌형은 이 세상이 모두
 싫어졌다 한다. 친구들에게서 온
 편지를 뒤적이다 훌쩍 뛰쳐나가면
 나는 안다 형은 또 마작으로
 밤을 새우려는 게다. 닭장에는
 지난봄에 팔아 없앤 닭 그 털만이 널려
 을씨년스러운데 큰 엄마는
 또 큰형이 그리워지는 걸까. 그의
 공부방이던 건넌방을 치우다가
 벽에 박힌 그의 좌우명을 보고 운다.
 우리는 가난하나 외롭지 않고, 우리는
 무력하나 약하지 않다는 그
 좌우명의 뜻을 나는 모른다. 지금 혹
 그는 어느 판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
 조합빛이 되어 없어진 돼지 울 앞에는
 국화꽃이 피어 싱그럽다 그것은
 큰형이 심은 꽃. 새아줌마는
 그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화사한
 코스모스라도 심고 싶지만
 남의 땅이 돼버린 논둑을 바라보며

것무른 눈으로 한숨을 내쉬는 그
인자하던 할머니도 싫고
이제 나는 시골 큰집이 싫어졌다.

— 「시골 큰집」 전문

고향은 무엇보다도 집과 가족 그리고 오래된 가업이 함께 있는 곳이다. 고향의 정감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 이웃과 함께하며 보낸 세월이 만 들어낸 두터운 유대에서 발현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배경으로 한다.¹⁶⁾ ‘시골 큰집’은 이러한 고향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유년기부터 형성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은 혈통 및 가족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의 구체적 현장인 이곳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와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다.¹⁷⁾ 따라서 시적 화자인 소년에게 ‘시골 큰집’은 집의 원초적인 모성이 충족되는 장소로서, 참된 안락과 다사로운 과거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간적 가치의 원천인 ‘큰아버지’, ‘사촌형’, ‘큰형’의 부재로 이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행복한 집은 사라졌다. 이것은 어린 소년에게 하나의 우주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나는 시골 큰집이 싫어졌다.’는 시적 화자의 고백에서 영혼의 장소를 상실한 자의 잠재된 분노가 전해진다.

「시골 큰집」 식구들이 이처럼 해체된 이유는 농촌의 경제적 궁핍 때문이다.

성장위주, 수출위주의 공업정책은 농업부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농업부문에 대한 저투자과 농민에 대한 은행대출이 부진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농업은 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었고, 농민들은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보다는 사채에 의존함으로써 농가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¹⁸⁾

16)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145면.

17)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32면.

‘지난봄에 팔아 없앤 닭’과 ‘조합빛이 되어 없어진 돼지’ 그리고 ‘남의 땅이 돼버린 논둑’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닭’, ‘돼지’, ‘논둑’은 본래 ‘시골 큰집’을 드러내는 가시적 기호들이었다. 이것들은 고향을 인식하고 애착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닭’, ‘돼지’, ‘논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자신만의 장소가 있다는 안정감과 고향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없어지자 시적 화자는 ‘시골 큰집’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시적 화자는 고향의 친밀함을 제공하는 친척과 형제 그리고 토속적 대상들의 부재로 인해 고향에 있지만 타향의 공허함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깃무른 눈으로 한숨을 내쉬는 그/ 인자하던 할머니’의 얼굴에서 장소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시골 큰집’ 식구들의 슬픔과 아픔이 전해진다. 이와 같이 장소와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고 진정한 장소감이 사라진 곳을 무장소라고 한다. 무장소는 폐가의 이미지를 지닌다. ‘지난봄에 팔아 없앤 닭 그 털만이 널려/ 을씨년스러운’ ‘닭장’은 폐가의 이미지로 전락해버린 ‘시골 큰집’을 상징한다.

허물어진 외양간에
그의 탄식이 스며 있다
힘없는 뉘우침이

부서진 장독대에
그의 아내의 눈물이
고여 있다 가난과
저주의 뉘우침이

부러진 고욤나무 썩어
문드러진 마루에
그의 아이들의
목소리가 배어 있다
절망과 분노의 맹세가

18) 성기각, 앞의 책, 164-165면.

꽃바람이 불면 늙은
수유나무가 운다
우리의 피가 얼룩진
서울로 가는 길을
굽어보며

— 「서울로 가는 길」 전문

「서울로 가는 길」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일가족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는 작품이다. ‘그의 탄식’은 ‘허물어진 외양간에’, ‘그의 아내의 눈물’은 ‘부서진 장독대’에, ‘그의 아이들의 목소리’는 ‘썩어 문드러진 마루’에 닿아 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일상적·습관적으로 머무는 집안의 거점들로서, 자신과 가장 친밀한 장소와 이별을 고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들이 저마다의 장소에서 슬픔을 토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삶의 위안과 활력을 얻었던 추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과 장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거주에서 비롯된다. 거주의 전형성을 갖춘 ‘집’은 그 특성상 오랜 시간의 축적에 따라 그곳과 관련된 정서를 증가시키고 깊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집이 인간에게 친밀함과 과거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자아의 정체성과 함께 세계 속에 안전하게 존재한다는 느낌인 정향감을 주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집보다 작은 장소인 ‘외양간’, ‘장독대’, ‘마루’는 자아에게 정체성과 정향감을 심어주는 구체적 원천인 것이다. 집안의 이 거점들은 살림살이의 기본으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공유화·특정화되면서 일상적·습관적으로 이용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점 간의 순환 경로는 탄탄한 의미와 안정감을 획득하여 집은 장소로서, 뿌리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집은 친밀한 장소이다. 우리는 주택을 집과 장소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매혹적인 이미지는, 바라볼 수 있을 뿐인 전체 건물에 의해서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주택의 구성 요소와

설비(다락방과 지하실, 난로와 내달은 창, 구석진 모퉁이, 걸상, 금박입힌 거울, 이빠진 잔)에 의하여 환기된다.¹⁹⁾

고향집에는 외양간, 장독대, 마루와 같은 일상적인 사물들로 가득 차 있다. 농민은 그 일상적 사물들에 크게 주위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일부로서 인식한다. 따라서 이 구체적 장소들은 농민에게 나날의 삶을 실재로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 나타난 고향집은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썩어 문드러져’ 가족 구성원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무장소로 그려진다. 고향의 터주로서 ‘늙은 수유나무’의 울음은 이향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한다. 또한 집 잃은 그들의 앞날이 ‘서울’에 서도 힘겨울 것임을 ‘우리의 피가 얼룩진 서울로 가는 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실존의 원초적 자리인 고향집에서 뿌리 뽑혀 나가는 일가족의 비참한 장면은 ‘꽃바람이 불면’서 더욱 극대화된다.

4. 실존의 위기와 무장소, 도시 변두리

산업화의 폐해로 농촌은 고향의 안락함을 상실하였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서울 혹은 도시 변두리의 공사장을 찾았다. 이농현상은 억압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서의 탈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존을 유지해주던 친밀한 자연환경과 인간관계로 구성된 장소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향이 영혼적 구성물의 총체에 수렴되는 뜻있음의 장소라면, 뿌리 없이 이익 균집체를 이루고 뜨내기로 들고 나는 도시 변두리는 실존과 유리되어 고티는 뜻없음의 장소다.²⁰⁾ 인간에게 뜻없음의 장소를 무장소로 규정할 수 있다. 무장소성의 가장 극단적인 수준은 ‘집’이라는 거주 장소로부터의

19) 이-푸 투안, 앞의 책, 232면.

20) 장석주, 앞의 책, 298면.

소외이다.²¹⁾ 농업에서 공업으로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 체제가 바뀌면서 농민은 도시 변두리라는 무장소로 떠밀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정한 장소감을 안겨주는 집을 잃고 자기 소외 현상을 겪었다.

박서방은 구주에서 왔다 김형은 전라도
어느 바닷가에서 자란 사나이
시월의 햇살은 아직도 등에 따갑구나.
돌이 날으고 남포가 터지고 크레인 이 운다.
포장 친 목로에 들어가
전표를 주고 막걸리를 마시자.
이제 우리에게 땀 분노가 있을
뿐이다. 맹세가 있고 그리고 맨주먹이다.
느티나무 아래 자전거를 세워놓은
먼서기패들에게서 세상 얘기를 듣고.
아아 이곳은 너무 멀구나, 도시의
소음이 그리운 외딴 공사장.
오늘밤엔 주막거리에 나가 섰다를
하자 목이 터지게 유행가라도 부르자.
사이렌이 울면 밥장수 아주머니의
그 살찐 엉덩이를 때리고 우리는
다시 구루마를 밀고 간다.
... (중략) ...
십장은 고향을 질러대고. 이 멀고
외딴 공사장에서는 가을해도 길다.

— 「遠隔地」 일부

산업화에서 소외된 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도시 변두리 공사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새 주거지로 삼은 도시 변두리는 일시적·우연적 특성을 띠어, 그 곳에서 맺은 인간관계 역시 그 영향에서

21)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90면.

비켜서지 못했다. 이것은 ‘박서방은 구주에서 왔다 김형은 전라도/ 어느 바닷가에서 자란 사나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출신지도 이름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익명적 관계로 드러난다. 이상적 장소인 농촌에서는 인간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삶의 내력이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하지만 이익군집체로 이루어진 도시에서는 자기 정체성의 부재로 자신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대면한다. 폐쇄적 장소가 폐쇄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장소의 폐쇄성은 「원격지」의 주된 배경인 ‘외딴 공사장’에서 잘 드러난다. ‘원격지’는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한다. 이것은 ‘외딴 공사장’을 가리키며 시적 화자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참된 장소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아아 이곳은 너무 멀구나, 도시의/ 소음이 그리운 외딴 공사장’이란 표현에서 현실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고립감과 적막감을 읽을 수 있다. 화자의 이러한 정서의 근원에는 장소에 대한 애착 결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²²⁾

하지만 이 ‘외딴 공사장’은 ‘돌이 날고고 남포가 터지고 크레인’이 우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 그리고 ‘십장의 고향’ 소리로 인해 삭막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이다. 또한 작업 현장의 기계화된 노동 체계 속에서 ‘우리는’ 그 기능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농민이 주체적 자아로 일을 할 수 있는 농사와 대비되는 노동환경이다. 이와 같이 실존이 희미한 곳에서 인간은 장소와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화자에게 ‘외딴 공사장’은 애착을 가질 수 없는 무장소이다.

22)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4면.

이 시의 마지막 행 ‘이 멀고/ 외딴 공사장에서는 가을해도 길다’에서 표현된 화자의 나지막한 푸념을 통해 도시 변두리의 무장소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다. ‘외딴 공사장에서는’의 ‘-는’은 참된 장소와 구별·대조하는 의미로 쓰여 이곳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가을해도 길다’에서 ‘길다’는 이곳과 화자의 소원한 거리감을 뜻하며, ‘가을해도’의 ‘-도’를 통해 ‘외딴 공사장’의 모든 것이 화자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산업화 시대의 대다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간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향 상실로 인한 증후로 시달려야 했다. ‘오늘 밤엔 주막거리에 나가 섰다를/ 하자 목이 터지게 유행가라도 부르자.’는 노동현장에서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소를 잃은 ‘우리’의 정신적 불안과 자기 상실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밥장수 아주머니의/ 그 살찐 엉덩이를 때리’는 ‘우리’의 행위는 무장소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감과 무의미함을 떨쳐보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이렌’ 소리가 노동의 시작을 강요하고, ‘다시 구루마를 밀고’ 가듯 삶을 밀고 가는 ‘우리’를 통해 장소를 잃은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이 그려진다.

여름 들어 나는 찾아갈 친구도 없게 되었다
 사글세로 든 시장 뒤 반찬가게 문간방은
 아침부터 찌는 것처럼 무덥고 종일
 아내가 뜨개질을 하러 나가 비운 방을 지키며
 나는 내가 미치지 않는 것이 희한했다
 때로 다 큰 권집 딸을 잡고
 객찍은 농지거리로 편통이를 맞다가
 허기가 오면 미장원 앞에 참외를 놓고 파는
 동향 사람을 찾아가 우두커니 앉았기도 했다
 우리는 곧잘 고향의 벼농사 걱정을 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소값 걱정을 하다가도
 처서가 오기 전에 어디 공사장을 찾아
 이 지겨운 서울을 뜨자고 벌러댔다
 허나 봉지쌀을 안고 들어오는 아내의

초체하고 고달픈 얼굴은 내 기운을 꺾었다
 고향 근처에 수리조합이 생긴다는 소문이었지만
 아내의 등에 업혀 잠이 든 어린 것은
 백일이 지났는데도 좀체 웃지 않았다
 처서는 또 그냥 지나가버려 동향 사람은
 군고구마 장사를 벌일 채비로 분주했다

— 「處暑記」 전문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고향을 떠나 거주하고 있는 곳은 ‘친구도 없는’, ‘서울’, ‘사글세로 든 시장 뒤 반찬가게 문간방’이다. 이곳은 도시의 후미진 변두리로서 시적 화자가 직면한 남루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 오랜 ‘친구’는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과 같다. 낯선 타향에 처한 화자에게 그런 ‘친구’마저 없게 되면서 ‘서울’의 무장소성은 점차 확대된다.

장소는 사람을 둘러싸고 활동의 토대가 되면서 그것의 일부로 사람을 포획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장소의 정체성은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동인이다. 장소는 실존적 외부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가 만드는 사회적 운명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내면으로 침투한다.²³⁾ 따라서 ‘사글세로 든 시장 뒤 반찬가게 문간방’이 갖는 장소의 밀폐성·비사회성과 같은 속성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의 내면을 규정한다. ‘나’는 ‘객쩍은 농지거리로 판통이를 맞’고, ‘아내’는 ‘초체하고 고달’프며, ‘어린것’은 ‘백일이 지났는데도 좀체 웃지 않’는다. 일가족의 삶에 건강한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한 일상이 지속되는 것은 이들이 피상적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상적 내부성으로 경험되는 장소는 인간을 지리적으로 소외시킨다. ‘나는 내가 미치지 않는 것이 희한했다’는 무장소의 극한에 몰린 화자의 비탄인 것이다.

23) 장석주, 앞의 책, 133면.

산업화 시대의 유동성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고향화되는 과정을 막고 거주지를 쉬지 않고 이동하게 했다.²⁴⁾ 타향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정주의 안정감이 없는 자로서 질서정연한 참된 삶을 일구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 소외는 장소로부터의 소외와 결부되며, 이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다. 결국 집권적 권력에 의한 산업화가 무장소를 유발한 것이다. ‘이 지겨운 서울을 뜨자’는 화자의 말에는 장소를 영원히 상실할 실향민의 운명을 예고한다.

해가 지기 전에 산 일번지에는
바람이 찾아온다.
집집마다 지붕으로 덮은 루핑을 날리고
문을 바른 신문지를 찢고
불행한 사람들의 얼굴에
돌모래를 끼어넣는다.
해가 지면 산 일번지에는
청솔가지 타는 연기가 깔린다.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내들은
서로 속이고 목을 조르고 마침내는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데
정거장을 향해 비탈길을 굴러가는
가난이 싫어진 아낙네의 치맛자락에
연기가 붙어 흐늘댄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 일번지에는
통곡이 온다. 모두 함께
죽어버리자고 복어알을 구해온
아버이는 술이 취해 뉘우치고
애비 없는 애기를 뺨 치며
산벼랑을 찾아가 몸을 던진다.
그리하여 산 일번지에 밤이 오면

24)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2010, 88면.

대밋벌을 거쳐 온 강바람은
뒷산에 와 부딪쳐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 되어 쏟아진다.

— 「山 1番地」 전문

「산 1번지」²⁵⁾에는 농촌에서 삶의 기반을 잃고 도시난민이 된 이향민들의 불행한 삶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곳은 ‘가난이 싫어진 아낙네’, ‘죽어버리자고 복어알을 구해 온 아버지’, ‘애비 없는 애기를 뱀 처녀’와 같이 절망의 끝에 선 다양한 인간 군상의 집약지이다. 또한 ‘불행한 사람들’,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내들’, ‘모든 사람들의 울음’에서 ‘-들’이라는 복수 접미사로 인하여 이곳이 인구밀집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가난은 ‘서로 속이고 목을 조르’거나 ‘죽어버리자고 복어알을 구해’오거나 ‘산벼랑을 찾아가 몸을 던’지는 것처럼 삶의 모순성과 충돌하는 양상을 빚어낸다.

세계가 우리의 욕망에 부응할 때 세계는 광활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지만, 세계가 우리의 욕망을 좌절시킬 때, 세계는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인간은 비극적 장소에 처했을 때 과밀함을 경험한다.²⁶⁾ 이러한 맥락에서 ‘산 1번지’는 공간적 압박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쾌감, 즉 과밀한 느낌을 일으키는

25)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상경해서 흥은동 막바지에 살게 되었다. 속칭 산 1번지라는 곳이었다. 두 칸이 있는 집이면 한 칸에는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만큼 가난들 했다. 이곳 주민들은 거의 농촌에서 땅을 잃고 축출당한 실형 농민들이었다. 마치 시골 어느 한 지방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대개 막벌이로 연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빼앗길 것도 없으니까, 이웃끼리 정도 두 텅고 터놓고 지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또 이웃끼리 악다구니며 싸움질도 잦았다. 바람만 조금 세차면 쓰러질 듯 흔들리는 판자 대포집에서 매일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것은 이내 사회술판으로 이어졌다. ‘대밋벌’은 고향 근처의 넓은 들판이다.”

신경림, 「내 시의 뒷이야기」, 앞의 책, 1983, 305면.

26)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3-114면.

장소이다. 과밀한 환경의 ‘산 1번지’에서 인간은 자기만의 평안한 구석을 찾기 어려우며, 이것은 안정의 근거가 되는 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여기서 보호되고 시작된다. 따라서 집이라는 장소는 인간 삶의 토대이며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맥락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안전과 정체성을 제공한다.²⁷⁾ ‘산 1번지’ 사람들의 무규범 상태는 이러한 집과 함께 정체성마저 상실하여 아노미에 빠진 것으로 이해된다. ‘바람이’, ‘집집마다 지붕으로 덮은 루핑을 날리고/문을 바른 신문지를 찢고’에서 묘사된 집의 경관은 ‘산 1번지’의 무질서와 혼돈 상태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이농민의 황폐한 내면을 규정한다.

‘산 1번지’가 표상하는 도시 변두리의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고 있다. ‘해가 지기 전’에 불어 온 ‘바람’은 ‘사람들의 얼굴에 돌모래를 끼어엿고, ‘해가 지면’, ‘청솔가지 타는 연기가 깔려’, ‘산 1번지’에 음산함과 불행의 전조가 시작된다. ‘청솔가지’가 타는 매캐한 연기는 생활의 피폐함에 억압된 ‘사내들’의 폭력성을 터트리는 매개가 되고, 그 자욱함 속으로 ‘가난이 싫어진 아낙네’는 ‘정거장을 향해 비탈길을 굴러’간다. ‘아낙네의 치맛자락에/연기가 불어 흐늘댄다’는 가난의 무장소에서 탈출하려는 욕망의 불길 이미지로 보인다. 다시 ‘산 1번지’에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통곡’이 오며 ‘밤이 오면’,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 쏟아진다.

이와 같이 「산 1번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노미에 빠진 도시 변두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무장소에서 사는 불행의 정수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대밋벌을 거쳐 온 강바람은/ 뒷산에 와 부딪쳐/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 되어 쏟아진다’이다. 고향 들판인 ‘대밋벌’에서 온 바람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이향민의 향수병을 자극하지만, 자신들의 구질 구질한 현실을 대변하는 ‘뒷산’으로 인해 서러움이 분출된 것이다. 진정한

27) 위의 책, 99면.

장소감이 실현되는 집과 고향은 세상과의 부조화로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산 1번지」에 나타난 이항민들의 비극은 그들이 힘겨울 때 의지할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신경림의 『농무』에 나타난 장소를 통해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소외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골장터는 농촌공동체의 정서가 농후한 장소였지만 농업이 산업화의 뒤편으로 밀리면서 피해해진 삶의 현상이 된다. 이와 같은 시골장터의 쇠락함은 그곳에 남겨진 농민들의 패배의식을 일깨우고 있었다. 고향집은 인간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영원한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고향에서 자신이 거주할 집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농촌을 떠나 찾아온 도시 변두리는 그 유동성으로 인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이 생성될 수 없는 무장소로 그려진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무장소성을 방황하거나 무장소의 가장 극단적 현상인 집으로부터 소외를 겪는다.

즉 농촌의 경제적 소외는 고향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했고, 농민은 자신과 가장 친밀한 장소인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지만 장소 상실로 인해 실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화를 위시한 집권적 권력은 농민을 사회의 빈민계층으로 전락시켜,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가 장소에서도 소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고자 산업화 시대의 농민이 처한 소외의식의 근원을 농민의 삶과 긴밀한 장소를 찾아 접근해 보았다. 친밀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필수조건이므로,

삶의 내면을 살펴보는 데 있어 그가 살고 있는 장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 글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농촌만이 장소 분석의 대상이 됨으로써, 『농무』에 나타난 장소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농무』의 주된 배경인 농촌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곳일 뿐만 아니라, 6·25로 인한 이념대립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념 갈등의 장으로서 농촌을 바라보는 것은 『농무』의 인물들이 겪는 소외의식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현재와 같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업 중심으로 거주지 이동을 하고, 이로 인해 탈고향화 현상은 보편화되었다. 고향은 인간적 가치가 충분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소이다. 현대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기 소외와 불안증은 세계 속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고향과 같은 장소를 상실한 것과 관련 있다. 더구나 산업화의 유동 구조는 타향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고향화되는 과정을 막고 있어 장소상실로 인한 자기소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인간이 집, 고향과 같은 친밀한 장소를 갖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필수조건이다. 사회의 유동성을 역행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참된 장소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구성원 간의 상호 유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소외 문제의 극복이야말로 장소 회복의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문초록>

이 글은 신경림의 『농무』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그들의 장소 상실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산업화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경제체제의 대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고향인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났다. 신경림의 『농무』는 당시 농촌과 농민의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인간에게 고향이라는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정신적

뿌리를 상징한다. 산업화 시대의 농촌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농촌은 더 이상 안락한 고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이에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은 고향과의 유대감을 상실한 채, 패배의식에 젖어 ‘서울’을 동경했다. 하지만 고향이라는 가장 친밀한 장소와의 불화는 인간에게 자아정체성 상실을 가져왔다.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도시 근교의 공사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새 주거지로 삼은 곳은 일시적·우연적 특성을 띠어 영속적 삶을 유지할 만한 진정한 ‘집’이 될 수 없었다. 이들이 타향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근원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산업화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기술과 직업 중심으로 인구를 이동하게 했다. 이 유동성은 사람들이 타향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고향화되는 과정을 막고 거주지를 쉬지 않고 옮기게 한다.

결국 산업화라는 집권적 권력이 무장소를 유발한 것이다. 무장소는 의미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를 말한다. 즉 농민은 산업화에 의해 뜻있는 장소에서 뜻 없는 무장소로 떠밀렸으며, 진정한 장소감을 안겨주는 ‘집’을 잃고 자기 소외 현상을 겪는다.

주제어: 신경림, 『농무』, 장소, 무장소, 산업화, 농촌, 농민, 고향, 집, 소외.

<참고 문헌>

1. 자료

- 구중서, 『신경림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5,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공광규,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 푸른사상, 2005.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성기각, 『한국 농민시와 현실인식』, 국학자료원, 2002.
신경림, 『삶의 진실과 시적진실』, 전예원, 1983.
_____, 『씻김굿』, 나남, 1987.
_____, 『농무』, 창작과 비평사, 1994.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경험의 시학』, 민음사, 2001.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전광식, 『고향』, 문학과 지성사, 2010.
피터 버거, 이종수 역,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근대화의 의식 구조』, 한벗, 1981.

2. 논저

- 강정호, 「신경림의 시집 『농무』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어문연구』 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김석환, 「신경림 시집 『농무』의 기호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0.
서범석, 「신경림의 『농무』 연구-농민시적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손미영, 「『농무』의 담화체계와 시적 어조의 특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0.

엄형운, 「부재의식이 담아내는 민중의 삶 : 신경림의 『농무』론」, 『한국어문학연구』 10,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1999.

오성호, 「『농무』의 리얼리티와 형상화 방법」, 『국어문학』 31, 국어문학회, 1996.

오수연, 「신경림의 『농무』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7.

이대의, 「신경림 시의 이미지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4.

한길자, 「신경림 시집 『농무』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6.

황영경, 「신경림 시집 『농무』에 나타난 슬픔 미학 연구」, 『여성정책개발 연구소 논문집』 3, 신홍대학부설여성정책연구소,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s in 『Agricultural Affairs』 of SHIN Gyeongrim

Song, jise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ss of farmers' places in connection with the reality in the time of industrialization described in 『Agricultural Affairs』 of SHIN Gyeongrim. In 1970's, the industrialization led by the government resulted in a great change in the economic system from agriculture to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process, a number of farmers left farm villages, their own hometown, and headed for a city. 『Agricultural Affairs』 of SHIN Gyeongrim reflects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farmers and agricultural areas in time.

A person's hometown symbolizes the mental root, not merely a physical environment. An agricultural area in the time of industrialization started to lose its foundation, and it lost the identity as a comfortable hometown. Farmers who were still living in a farmland lost the unity with the hometown, and yearned 'Seoul' out of a sense of defeat. However, the discord with hometown, the closest place, resulted in the loss of identity of human.

Farmers started to be gathered at construction sites in 'Seoul' and nearby cities to find a job. The places where they found a new house were just instant and incidental. They could not become a genuine 'home' to continually keep their life in. Their living in a place away from home was

mainly due to industrialization led by the government. Industrialization made people leave the birthplace and move out for skills and jobs. Such population mobility prevents people from settling in a certain place away from home as the second hometown, and makes them move continually. In the end, industrialization, the governing power so to speak, caused 'No Place.'

No place indicates a potential attitude that does not admit an environment or a place with no meaning. In other words, farmers were flooded away from a meaningful place to a meaningless 'no place' due to industrialization. They lost a 'house' that bears the genuine sense of place and went through self-alienation.

KeyWords: SHIN Gyeongrim, 『Agricultural Affairs』, place, no-place, industrialization, agricultural areas, farmers, hometown, house, alienation.

송지선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astime@empal.com

이 논문은 2011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